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2. 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14:00~17: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6호 및 제22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6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7호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호 『삼화전자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8년 상반기 감사를 받으며 당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지식 부족을 인지하게 되었고, 시기상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수정하여 공시하기에는 인적 및 시간 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였으나, 이후 물적·인적 노력을 하여 기말감사는 적정의견을 받은 점을 정상 참작하여 2018년 과징금에 대해 경감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의견거절이 나온 뒤에 정정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하였는지?

- (보고자) 회사는 앞까지는 다 수정했지만 2018년 3분기까지는 수정하지 않았음. 그래서 결국 위반사항 자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그대로 내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지적하되 실질적으로 수정은 그 이후에 기말보고서 때 다 수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정은 된 것으로 봐서 감경은 두 단계를 적용하였음. 그런데 회사의 진술요지는 기본입장에서 분·반기에 대한 과징금이 크기 때문에 분·반기에 대한 과징금 자체를 감경이나 감면해 달라는 내용임.
- (위원) 의견거절된 것이 공시가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후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된 정보와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신호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요소가 없는지?
- (보고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데 반기에 의견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에 대한 차등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유로 인해서 과징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없었음.
- (위원장) 삼화전자공업(주)의 조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음.
- (위원) 회사가 단기간 내에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있었고, 그 무렵에 투자자들에게 의견거절이 공시되었지만 비교적 1분기 내에 그것을 다 정정해서 온기에는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회사 과징금을 20% 감경하자는 감리위의 소수의

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감리위의 소수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도 소수의견에 동의함.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삼화전자공업(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자진수정 공시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회사의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음은 감사인의 조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감사인에 대한 조치 관련하여 본 건의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新양정기준 VI.2.나.6)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중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안건처럼 지정감사인임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가중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위원장)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다음 증선위에 재상정하여 수정의결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16시 3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의결안건 제20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원인사실은 아시다시피 당사자 ▲▲▲가 주식회사 ○○○○○ 대표 □□□과 공모해서 2020년 12월 16일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상승 직후에 ●●●●●(주)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임.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음. 먼저, 당사자 ▲▲▲는 (주)○○○○○에서 대량 마스크 공급계약을 공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이 사건 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12월 16일인데, ▲▲▲의 매매거래내역을 보면 9시 20분경부터 그 공시 직전까지 당일 매매한 27만주 중에서 약 18만주를 이미 매도한 상태였음. 즉, 오후에 공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 오전에 18만주를 매도했을 리는 없을 것임. 이 사실을 통해 당사자가 당시에 공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 두 번째는 대량 마스크 공급계약이 허위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임. 일단, 당사자 ▲▲▲는 (주)○○○○○에 재직할 사실도 없고 (주)○○○○○의

단순투자자임. (주)○○○○○의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도 없어 ○○○○코리아와 어떠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 공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음. 만약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코리아가 반박해서 시장에 그 공시가 허위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부분 매도했어야 했음. 그런데 그 반박 공지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허위공시가 있는 후 약 1주일 뒤인 2020년 12월 22일인데, 22일 이후에도 ▲▲▲는 여전히 18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심지어 당일 오후에는 전환사채(CB)를 새로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이 계약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허위계약임이 시장에 알려지면 전환가액 이하로 주가가 낮아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전환사채(CB)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 마지막으로 □□□과 허위공시 및 보유주식을 고가매도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는 ◇◇◇◇◇를 통해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을 한 이후에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에서도 단순투자자에 불과했음. ○○○○와의 대량 마스크 공급 계약이 협의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주)○○○○○에서는 이 허위공시가 문제된 이후에 그 마스크 공급계약을 중개한 사람들을 고소했는데 이 사실조차 ▲▲▲는 알지 못했음. 정리하면 ▲▲▲는 자신이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매한 것이었고 그 주식담보대출의 만기가 2020년 12월 31일이었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하락된 주가에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매

도를 하였던 뿐이지, 허위공시임을 알고 그 공시가 이루어
질 당시부터 매도하였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위원) 진술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
유하고 있던 (주)○○○○○ 주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을 본
인이 단독으로 하신 것인지?

▶ (진술인) 단독으로 처리했음.

- (위원) ●●●●●●(주)의 대주주는 누구인지?

▶ (진술인) 제가 80%를 보유하고 있고 저의 아내가 20%, 이
렇게 100% 소유하고 있음.

- (위원)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주식 처분한 그 대금의
일부분을 □□□가 운영하는 회사 쪽으로 대여를 하지 않으
셨는지?

▶ (진술인) 재무담당 팀장의 전화가 와서 자기네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루만 쓰겠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음.

- (위원) 그 돈은 다 회수하였는지?

▶ (진술인) 했음.

- (위원) 상환받을 때 이자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 ▶ (진술인) 이자를 일부 좀 받은 것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음.
- (위원) 2020년 12월 22일에 전환사채(CB)를 한 10억 원어치 매수하셨는데 전환사채(CB)를 매수한 이후에 그 공시가 허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전환사채(CB)를 매수했는데 공교롭게 그 날 밤에 ○○○○○코리아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게시해서 알게 되었음.
- (위원) 전환사채(CB)를 매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 ▶ (진술인) 그 무렵에 그러한 공시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주식 손실도 좀 봤고 그때 그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이 9,300원 정도여서 이것을 전환하면 손실을 좀 만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입했음.
- (위원)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입하셨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주식을 왜 매도하셨는지?
- ▶ (진술인) 그전에 담보대출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주식이 좀 올라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처분하였음. 그리고 일정부분 손해 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환사채(CB)로 잘하면 만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매입하였음. 안 그러면 전환사채(CB)를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 만약 허위공시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여쭙어보면 공시 전달 시장에 공시 외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위반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으면 유포된 이후에 처분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있는데 지금 안전 자체에는 공시와 보도자료가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시 이전에 처분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부당이득금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을 좀 했었음. 공시 나가기 전에 매도한 18만주를 제외하면 부당이득금액이 한 5억 2,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짐. 그러나 고발기준상 5억 원 이상 부당이득금액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기준에는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과 고발인 진술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자 함.
- (위원) □□□, ▲▲▲ 두 분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지?

- (보고자) 전력은 없고, □□□는 작년 12월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지금 재판 중임.

○ (위원장) 동 사안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나 입증에 추가 보충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됨. 하지만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검찰로 보내서 수사당국이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동 안건은 원안대로 검찰고발로 의결하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위공시 이후의 금액만 부당이득금액으로 산정하고, 허위공시 이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1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주식은 회계감사 시즌을 넘겨서까지 보유할 이유가 없었음. 당시 인터넷에도 상장폐지 종목으로 자주 거론되던 회사여서 주식을 매도한 것일 뿐인데, 이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네이버카페나 블로그에 가보면 ○○(주)의 상장폐지 및 사유를

예측하는 글이 있었고, 저는 단지 이를 참고해 주식을 매도한 것임에도 조치사전통지서가 송달되었음.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저는 억울함. 지난 자조심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금번 증선위에 제출할 자료도 추가로 찾아보았으나, 기간이 4년 이상 경과되었고, 블로그나 카페 등도 폐쇄되어 많이 찾지는 못하고, 대략 7~8건 정도는 확인하였음. 거의 ○○(주)가 상장폐지 된다는 내용임.

- (위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블로그 글을 보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럼에도 650만 주를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회계감사 시즌 이전까지만 매매하려고 했음. 이는 High risk-High return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주가가 1만원인 주식이 2,000원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100원인 주식이 20원 오르는 것은 쉽다고 생각했음. 이에 따라 ○○(주) 주식도 당시 주가가 낮아 오를 것이라 판단하였음.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쉽게 대량으로 매매하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음. 다만 저는 다른 투자자와 달리 증권사에 장기간 근무하여 ○○(주)가 3월 회계감사 시즌 이후 퇴출

될 것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장기 보유할 생각은 없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이 ●●●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을 보면 ★★의 법적지위가 투자중개인이고 내부자의 공범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분을 1차 정보수령자로 보지 않고, ●●●를 1차 정보수령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자본시장법상 ★★★이 준내부자가 되려면 해당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투자중개를 한 것은 ○○(주)의 관계사인 ♥♥♥♥♥(주)이라는 회사가 ●●●을 중개한 형태임.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준내부자로는 보기 어려우나, 2020년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에 ☆☆☆과 ●●● 간 직접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동 정보의 내용과 주식매도 간 인과관계가 있고 동 정보 제공 행위가 주식매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미공개정보 수령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 ☆☆☆을 공범으로 보고 ●●●을 1차 정보수령자 및 이용자로 판단하였음.

○ (위원) ☆☆☆이 ★★★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유는 이를 ●●●에게 전달하라, 즉, 일종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 왜 2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쟁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과 ☆☆☆은 왜 공범인가, 이익을 누렸다거나, 손실보전 약정이나 담보제공이 있어 사실상 경제적 이익공동체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2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 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이유를 더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3월 7일이 정보생성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기한이 언제였는지?
 - (보고자) 제출기한은 3월 11일 정오까지였음. 그런데 ○○(주)가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니까 3월 12일에 다시 2차 공문으로 촉구하였음.
- (위원) 3월 7일 정보가 생성되었다면, 3월 11일 전까지는 전량 매도하였어야 했는데 이후에도 또 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보고자) 정보의 지득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에게 정보가 전달된 것이 3월 12일경이라고 판단했음. 3월 12일까지 ●●●이 매수·매도한 주식은 개인적으로 매매한 주식이고, 그 이후 3월 13일과 14일에는 전환주식만 전량 매도한 것임. 정보전달이 3월 12일에 되어 3월 13일부터 매도가 시작됐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거액의 단타를 주로 하는 투자자로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혐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담보금 약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전 사안과 마찬가지로 수사당국에서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이견 없음.

○ (위원) 이견 없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4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2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45분 폐회)